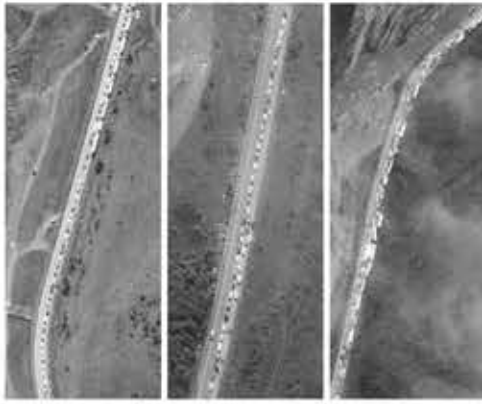


위성에서 포착한 '러시아 탈출' 차량 행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발령한 이후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차량 행렬이 줄을 잇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다.



▲ 러시아 국경 검문소 부근 도로에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차량이 줄을 지어서 있는 모습. 사진=막서 테크놀로지

위성기업 막서 테크놀로지는 최근 러시아에서 수집한 새로운 위성사진들을 공개했다.

러시아 국경 검문소 부근을 찍은 위성 사진에는 인접국인 조지아나 몽골로 향하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담겼다. 검문소로 향하는 도로는 꽉 막혀 있지만, 반대 차선은 텅 빈 모습이다.

핀란드 국경으로 향하는 러시아 차량도 늘고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 1,300km를 맞대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 거치는 관문으로 이용되고 있다.

핀란드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지난 25일에만 러시아인 8,000여명이 입국했다. 부분 동원령 발표(9월 21일) 며칠 전인 지난 18일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부분 동원령 발표 이후 많은 러시아인은 지난 7개월간 러시아군 수만 명이 죽거나 다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투입되는 것을 피하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해 러시아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를 떠나는 방법을 찾는 구글 검색이 급증했고, 편도 항공권이 매진됐으며, 러시아 국경 검문소 부근의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 계속 올라왔다.

러시아 전역에서 부분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지금까지 2,3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사상 초유의 아기 침팬지 납치 사건

동물보호시설에 있던 아기 침팬지 3마리를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황당한 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벌어졌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C)의 한 동물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일이다.



▲ 납치범들이 보낸 침팬지 영상의 일부. 사진=nbc12.com

사건은 지난 9일 새벽 3시 무렵 발생했다. 당시 납치범들은 루분바시에 위치한 JACK 동물보호시설에 몰래 침입해 총 5마리의 아기 침팬지 중 3마리를 납치해 도주했다. 이후 납치범들은 납치한 침팬지들의 영상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 이들의 몸값을 요구했다.

실제 납치범들이 공개한 영상에는 마치 인질이 된 아이처럼 한 방에 갇혀 겁에 질려 고통받은 침팬지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동물보호시설 창립자인 프랑크 샤테로는 "납치범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침팬

지들에게 약을 먹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침팬지가 몸값을 위해 납치된 것은 아마 세계 최초일 것"이라고 밝혔다.

납치범들은 침팬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1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시설 측은 돈이 없어 발발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샤테로는 "납치된 침팬지들은 모두 야생동물 밀거래에서 구조된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면서 "몸값도 없지만 만약 지불한다고 해도 침팬지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아프리카에는 우리와 같은 보호시설이 23곳 있는데 만약 몸값이 지불되면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눈썹 네 개 된 여인의 사연



▲ 네 개의 눈썹으로 생활했던 미키는 마침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사진=mustsharenews.com

잘못된 눈썹 문신 시술로 졸지에 눈썹이 네 개가 된다면 어떨까?

태국 동부 라용에 거주하는 니파프론 미킹(32)은 1년 넘게 눈썹 두 쌍을 보유한 채 생활했다. 미키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전에 눈썹을 예쁘게 문신하고 싶었다."면서 "친구가 추천해준 미용 클리닉에서 1,500바트(약 50달러)를 내고 문신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이 끝난 후 눈썹이 네 개가 된 것을 알고 말문이 막혔다."며 분노했다.

미키는 즉시 시술 받은 미용 클리닉에 항의했고, 이에 클리닉 측은 "내일 다시 무료로 재시술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미키가 다음 날 클리닉을 찾을 때 클리닉은 문을 닫고 잠적한 상태였다.

네 개의 눈썹으로 생활해야 했던 미키는 "자신감은 한없이 떨어졌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다른 클리닉을 찾아갔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온라인을 통해 그의 딱한 사연을 알게 된 한 타투리스트가 문신 삭제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몇 차례 시술 끝에 외출할 수 있을 만큼 나아지는 했지만 가짜 눈썹의 흔적이 여전히 흐릿하게 남아있다.

미키는 "정말 끔찍했다. 하지만 운 좋게도 문신을 지울 수 있었다."면서 "마침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에당식당